



뉴스
임대차2법
전세시장 불 질렀다
한달새 4억 댄 곳도
02



Economy

코스피	2365.90 (+7.90)	코스닥	862.58 (+4.19)
금리(미국 3년)	0.905 (+0.024)	환율(원-달러)	1161.00 (-2.40)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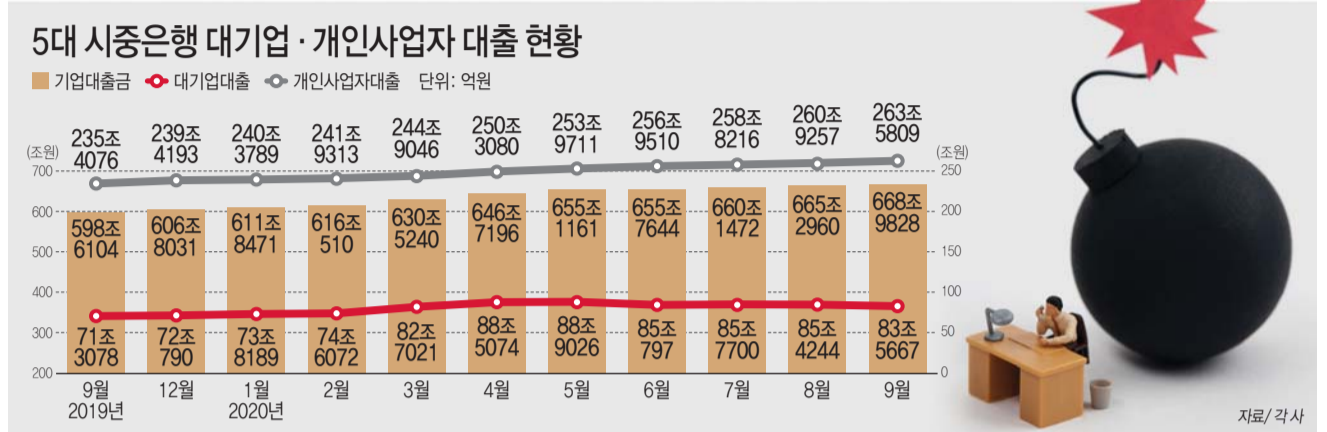
263조 자영업자 대출 ‘부실뇌관’ 경고등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지난달 기준 263조5809억 집계
원리금상환·이자유예 1조 달해
자영업 폐업 뎀 여신 건전성 악화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더라도 은행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 여기에 내년 3월까지 원리금상환과 이자유예가 시행되고 있어 추후 금융권의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월 기준 263조5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조655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23조2020억원으로 매달 평균 2조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잔액은 9월말 기준 83조5667억원으로 전월(85조4244억원) 대비 1조8577억원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3조8229억원에 이어 8월 3456억원 두 차례 감소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매달 2.6조씩 부채 증가... ‘빚내서 버티는 중’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대기업들은 5월 이후 대출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책자금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대출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추후 은행들의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

내 자영업자는 5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568만3000명)과 비교해 12만 8000명 감소했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던 9월 이후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칙상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폐업하게 되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자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1년단위로 대출을 하는데,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고 알리지 않는 이상 폐업여부를 바로 알 수는 없다”며 “이후 연체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돼 연장여부를 검토할 때 폐업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3월까지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되며 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도 미뤄진 상태다. 5대 시중은행이 원리금을 미뤄준 금액은 약 36조원으로 이자까지 받지 못한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의 경우 심사를 강화해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부실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자납부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3월 이후 부실이 급증할 경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빅히트’ 히트쳤다 청약 증거금 58조 1억당 2주 받을 듯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마무리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가 58조원의 시중자금을 끌어모았다. 최종 경쟁률은 606.97대 1을 기록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히트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별 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663.48:1) ▲미래에셋대우(589.74:1) ▲NH투자증권(564.69:1) ▲키움증권(585.23:1) 순으로 높았다.

각 증권사에 배정된 일반 청약 모집 물량은 NH투자증권 64만 8182주, 한국투자증권 55만 5584주, 미래에셋대우 18만 5195주, 키움증권 3만 7039주였다.

이에 따라 빅히트의 통합경쟁률은 606.97대 1로 최근 공모를 마쳤던 카카오게임즈(1524.85대 1)보다는 낮지만 SK바이오팜(323.02대 1)보다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빅히트가 끌어모은 증거금은 58조4236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쓴 카카오게임즈(58조 5543억원)에 살짝 못미쳤다.

청약 증거금 58조 4236억원
최종경쟁률 606.97대 1 기록
한국투자증권 663.48대 1 ‘최고’
상장 첫 날 ‘파상’ 뎀 35.1만원

빅히트 청약 흥행은 예측 가능했다. 청약 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64조 93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 거래일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하면서 카카오게임즈 청약 당시의 추세를 상회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자금이 빅히트 청약을 위한 대기 자금으로 해석했다.

빅히트 청약 경쟁은 둘째 날 오후부터 치열해졌다. 청약 첫날인 지난 5일 통합 경쟁률은 89.6대 1로 마감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높은 공모가 탓에 투자 열기가 식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경 경쟁률이 400대 1을 넘기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최종 경쟁률에 따라 1억원을 넣은 투자자들은 2주 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첫날 파상을 기록하면 주가는 35만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투자자들은 1주당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청약 증거금은 환불은 오는 8일 증권사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한 이용객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구글 앱 마켓 갑질’ 전 세계 반발 움직임

인도 ‘비공식 연맹’ 결성 등 반발에
인앱결제 의무 2022년 4월로 유예
美 연합 출범... 구글 지위남용 지적

구글의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게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 신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

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이 같은 발표 이후 구글의 지위 남용으로 모바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전 세계에서 구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1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비공식 연맹을 결성하고 인도에서 구글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도 지난달 29일 구글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립자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자 구글은 인도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인도에서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확대를 오는 2022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나라보다 6개월가량 늦춰준 것이다. 구글이 인도의 반발을 의식해 수수료 확대 시기를 미뤘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정책에 반대한 ‘앱 공정성 연합(CAF)’이 출

범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연합에는 현재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구글·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를 포함해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도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 경쟁당국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앱마켓 원칙 10가지를 요구하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이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